

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재원

새누리당 군위군·의성군·청송군

배포일시

2013. 10. 15. (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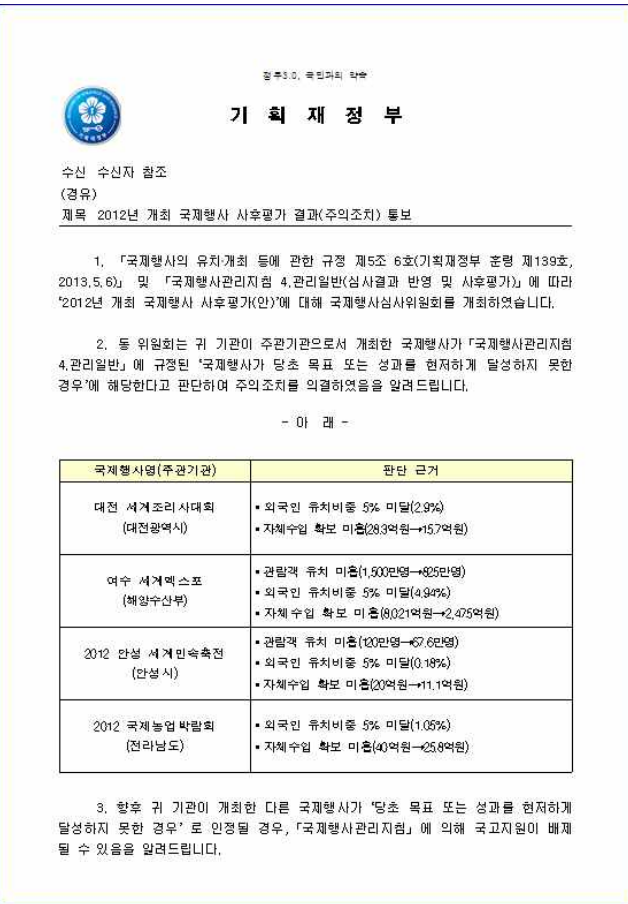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보도 가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419 호
전화 02)784-2820, 팩스 02)788-0153 담당 : 오범석 비서관(010-9121-2152)

기재부, 여수세계엑스포행사 당초 목표 미달성으로 주의 조치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추가 재정 투입보다는 민간투자 유치를 우선해야
정부 추가 투자 시 투자회수계획 분명히 해야

1. 여수세계엑스포 행사, 당초 목표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하여 기획재정부로부터 주의조치 받아



정부S.O, 국민의 의지

제 목 2012년 개최 국제행사 사후평가 결과(주의조치) 통보

2. 둘 위원회는 귀 기관이 주관기관으로서 개최한 국제행사가 「국제행사관리지침 4.관리일반」에 규정된 「국제행사가 당초 목표 또는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의조치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3. 향후 귀 기관이 개최한 다른 국제행사가 '당초 목표 또는 성과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해 국고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2

경제의 개발과 불평등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공통된 원인으로 보인다.

여수세계엑스포의 문제점은 지난 8월 13일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에 보낸 공문에서도 확인된다. 기재부는 2012년 개최한 여수세계엑스포에 대한 사후평가 결과 목표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면서 해수부에 주의조치를 주었고, 해수부가 다른 국제행사에서도 당초 목표를 현저하게 달성하지 못한 경우 ‘국제행사관리지침’에 의해 국고지원이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여수세계엑스포의 사후평가 근거로 1) 관람객 유치 미흡 (1,500만명 → 825만명), 2) 외국인 유치 비중 5% 미달 (4.94%), 3) 자체수입 확보 미흡(8,021억 → 2,475억원)을 제시했다.

2. 국회로 넘어온 2014년 예산안 중에 박람회 사후 활용관련 예산은 89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동북아 해양관광 레저특구 조성지원’ 사업에 88억 5,500만원이 반영되어 있다. 총 소요액 91억 5,300만원에서 고작 2억 9,800만원의 자체수입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국회 예산심의단계에서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증액하기 위해 국회를 설득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내년 예산 214억원 요구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사업주체인 재단의 자체수입이 미흡하므로 기본적인 기관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내년에 21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산을 신청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제관 등 관리비 56억 9,300만원, 시설물보험 44억 7,000만원, 여수프로젝트 30억원¹⁾, 스카이다워와 엑스포디지털갤러리 등 특화시설의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27억 6,100원, 직원 26명에 대한 재단 인건비 17억원, 박람회기념관 운영비 12억 4,500만원, 재단 운영경비 12억원, 홍보 및 마케팅 10억원, 국제심포지엄 2억 5,000만원, 국제협력 7,500만원 등이다.

중기재정계획 상으로도 4년간 총 907억원, 연평균 227억원을 또 투자할 계획 해수부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서 명시된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여수세계박람회에 2014년 306억 6,200만원, 2015년 250억원, 2016년 200억원, 2017년 150억원으로 향후 4년간 총 906

1)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임.

억원 6,200만원, 연평균 226억 6,550만원을 또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합계
투자금액	30,662	25,000	20,000	15,000	9,066,200

최근 4개월간 실제 집행 기준으로도 유지관리에 연간 204억원 이상 필요해 실제 여수박람회 재단 유지관리 비용을 살펴보면 최근 4개월 간 68억 2,400만원이 지출되어, 매달 평균 17억원의 관리비용이 소요된 셈이다. 이를 감안할 때 1년에 최소 204억원(17억원 × 12개월) 이상의 유지관리 비용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다.

<여수박람회재단의 유지·관리비 지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재단운영비	시설관리비	기타
2013. 5월	2,234	481	1,209 ¹⁾	544
2013. 6월	1,033	294	463	276
2013. 7월	2,325	334	1,715 ²⁾	276
2013. 8월	1,232	297	421	514
소계	6,824	1,406	3,808	1,610
월 평균	1,706	352	952	403

주) 1) 시설물보험 9.5억 집행 2) 빅오시설물 보험 13억 집행

연간 89억원으로 유지관리 가능하다면, 2.4배나 예산을 부풀린 책임 물어야 만일 연간 89억원이 유지관리에 충분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매달 17억원씩 과도한 예산을 쓰고 있고, 내년에도 2.4배나 예산을 부풀려 신청한 해양수산부의 예산 낭비는 비난을 넘어서 처벌을 받아야 할 사안이다.

3. 직접사업비 2조230억원에 정부의 선투자자금 4,846억원이 이미 포함되어 추가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김재원 의원실에서 해양수산부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서

총 예산 12조 450억원에 정부의 선투자금 4,846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는데, 해양수산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예산이라고 답변하였다. 김재원 의원은 이같은 해수부의 답변을 근거로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 직접사업비 2조 230억원은 정부의 선투자자금 4,846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4. SOC사업이 당초 국토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건설 중이었거나 건설을 확정 한 사업들의 공기를 다소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불황으로 다른 대부분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해 예산 삭감 없이 전액을 투입하고 거기다 공기까지 앞당긴 것은 그 자체가 상당한 투자이고 지원이라고 할 수 있고, 공기를 다소 앞당긴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러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5. 정부가 일정투자를 선행하여 박람회장을 활성화시키고 매각하는 것이 유 리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가 지난 2012년 9월 13일에 고시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에 따르면, 박람회 부지 사후활용으로 인한 생산유발 효과가 약 36.5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약 18.3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당초부터 2014년 말까지 매각대상 부지와 시설은 민간에 일괄매각하여 개발하고 박람회 개최에 선 투입된 정부재정²⁾은 2013년까지 전액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각이 지연될 경우 2014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내용을 추진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실상은 박람회장 사후활용을 위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2차례³⁾에 걸쳐 시설·부지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응모자가 한 명도 없어 매각에 실패하는 등, 박람회 부지 사후활용 효과 54.8조원은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2) 선 투입 정부재정은 4,846억원(공자기금 1,000 정부출연 3,846) 중 미 회수금액 3,846억원

3) (1차) '12. 9~11월 5,300억원, (2차) '13. 7~9월, 4,800억원

해수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입지적 한계, 높은 매각가액(4,800억원)으로 인한 투자자의 초기투자 부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활동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단계에서부터 행사 후 철거되는 시설은 임시건물로 조성하였고 임시시설물의 철거 및 단지 정리 등 박람회 사후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후활용대책비로 42억원의 예산을 반영⁴⁾하였으나, 사후활용대책비 예산 42억원 중 사후활용을 위한 핵심전략 구현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⁵⁾으로 4억 7,500만원만을 집행하였을 뿐, 해수부가 주어진 예산으로 실행가능한 사후활용대책 마련은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활용 계획이 발표된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양수산부가 시설·부지 매각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이다.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잔여시설을 조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으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투자계획만 세워놓고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안일한 태도는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할 여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정부의 추가 투자보다는 잔여시설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분할매각, 장기임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며, 박람회 기간이 끝나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이런 형태의 전시성 박람회는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현실적인 여수엑스포 사후처리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에 구체적인 향후 활용계획을 내놓으라고 질타한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도 매각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였다. 매각조건을 당초 일괄매각에서 2차에서는 일괄매각과 분할매각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매각가격도 당초 투자비 기준 5,300억원을 2차에서는 감정평가액 기준 4,826억원으로 변경하였다. 대금납부조건도 일괄 납부에서 5년간 분할 납부 조건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해수부는 박람회장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13. 1. 1. 시행)하였고, 해양박람회 특구 지정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여수세계박람

4) 2012여수세계박람회 종합기본계획(2010. 11) p377, 381

5)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는 2012. 1. 26부터 6. 25까지 사후활용을 위한 핵심전략 구현방안, 운영주체 설립방안, 운영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함

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13. 3. 12. 시행)하였으며, 4건의 축제도 유치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12조 450억원이라는 엄청난 국민혈세가 투입되었고 매년 유지관리 비용으로 2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추가로 정부재원을 투입해서 박람회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고가 필요하다.

해수부도 얼마나 예산을 더 투입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과 계획을 밝혀야 한다. 추가투자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해수부가 연간 200억원이던 아니면 그 이상이든 추가로 투자를 집행할 경우 추가 투자로 달라지는 투자회수계획을 펼쳐 보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산을 더 투입하면 아무래도 박람회장이 더 활성화되기는 하겠지만, 투입 대비 효과가 최소 수준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정부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의 추가 투입으로 박람회장이 어느 정도 활성화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매각예정금액이 높아 이를 사고자 하는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추가 예산을 투입하면 매각해야 할 금액이 더 올라가서 민간으로의 매각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끝.